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은 '26년까지 560억원 투입 예정이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보도 주요 내용〉

10.31(목) 한겨레신문(인터넷)은 「윤 "지원하겠다"더니...제주 그린수소 예산 27% 삭감」 제하의 기사에서 1)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예산이 대거 삭감되었고, 2) 예산삭감 여파로 주요 참여사가 이탈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 3) 이탈한 참여사(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 SK E&S와 Plug Power의 합작법인)의 투자 프로젝트는 지난해 대통령 방미 성과로 홍보했었는데 아직 부지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1) 10월 15일 제주도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은 2026년까지 총 560억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 작년 정부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에서 참여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4년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음

* '22~'26 총 사업비(국비) : (기존) 614억원 (296억원) → (변경) 561억원 (268억원)

2) 동 과제의 참여기업 한 곳이 사업 참여 중단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다른 기업이 대체참여를 하여 현재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 중임

* 과제의 성과지표는 실증규모 10.9MW로 공고상 목표인 10MW 이상을 충족

3) 한편 대통령의 미국 국민방문('23.4월)시 개최된 투자신고식에서 Plug Power社가 신고하였던 프로젝트는 국내에 수소기술 R&D센터 및 수소연료전지 등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천시와 입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담당 부서	수소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한서	(044-203-3970)
		담당자	사무관	윤도경	(044-203-3977)
	투자유치과	책임자	과 장	엄재영	(044-203-4080)
		담당자	사무관	김민수	(044-203-4089)